

친애하는 「방재와 보험」 애독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戊子年)을 맞이하여, 기대로 가득 찬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방재와 보험」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07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한국화재보험 협회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변화경영의 방향성 정립과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실천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난 및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재컨설팅을 수행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2007 한국컨설팅 방재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힘껏 도약했던 2007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2008년에도 최상의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화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위험관리 서비스 기관으로서 그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보고서를 개선하여 손해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고객관리 기법 발굴 및 고객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업계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둘째, 초일류 방재시험 연구기관으로서 방재시험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위험관리 연구·개발 영역 확대 및 체계적인 화재원인조사 등을 통해 위험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아울러 고품격 방재·위험관리 교육기관으로서 손해보험 위험관리 관계자들에 대한 무료교육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조직구조 및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경영을 정착시키고,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개개인이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력을 갖추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방재와 보험」 애독자 여러분!

해가 바뀐다는 사실을 단지 세월의 흐름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흐름이 주는 의미를 개인이나 조직의 발전의지와 연계시킨다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새해에도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방재와 보험」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제 정 무